일본의 경제: 잃어버린 10년

日本の経済: 失われた10年

임이루 | 일본 문화 발표 | 2020-05-27

# 목차

1.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합의 =
2. 블랙 먼데이와 과열된 시장
3. 잃어버린 10년
4. 역플라자 합의와 양적완화

##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합의

플라자 합의란? 1985년 G5[[1]](#footnote-1)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 달러가치 절하와 엔화, 마르크화 가치 절상에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급상승했는데, 달러당 259엔에서 121엔까지 두 배 절상했다. 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일본은 기준금리를 5%에서 3%로 2%p 낮추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는 낮아지지 않았기에 미국은 루브르 합의를 또 하게 된다.

루브르 합의란? G7[[2]](#footnote-2) 재무장관이 구 루브르 왕궁에 모여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금리 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이후 일본은 금리를 추가로 0.5%p 내린 2.5%로 조정한다.

마침 유가도 낮았겠다, 값싼 수입산 물품이 들어오면서 물가도 낮아졌겠다, 거기다 금리까지 낮으니 민간의 구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도 점점 더 활성화되어 갔다.[[3]](#footnote-3)

1. 블랙 먼데이와 과열된 시장

블랙 먼데이란? 1987/10/19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만에 22%p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4]](#footnote-4) 루브르 합의 이후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한 독일과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 했고 실제로 독일은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과 일본이 “더 이상 타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였기에 산업 위축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블랙 먼데이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놀란 미국, 독일, 일본은 금리 인상을 꿈도 못 꿨으며, 미국과 독일은 오히려 금리를 낮추기까지 한다. 이는 부동산 투자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버블은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다.

1. 잃어버린 10년

블랙 먼데이 이후 일본의 땅값 상승률은 연 20%를 기록했으며, 닛케이 225 지수도 38915를 기록한다.[[5]](#footnote-5) 또한 플라자/루브르 합의의 목적이었던 미국 무역적자 해소도 상당부분 달성되었기에, 일본 정부는 금리를 인상시켜 투기수요를 잡고 경기를 안정화 시키려 했으나, 금리를 단기간에 2.5%에서 6%로 3.5%p나 올려버린 바람에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된다.[[6]](#footnote-6)

1. 역플라자 합의와 양적완화

버블 붕괴 이후 복구 과정에서 일본에 두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첫번째는 고베 대지진, 두번째는 동일본 대지진이다. 고베 대지진 때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출 때문에 외국 자산을 팔아 엔화를 사들였고[[7]](#footnote-7), 이로 인해 엔화가치가 올라가자[[8]](#footnote-8) 일본 기업들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뜩이나 내수시장도 얼어붙었는데 수출시장조차 막히게 되자 일본은 G7 정상회의에 “엔화가치 내릴 건데 좀 봐달라……”고 하고 타 국가가 이를 용인했는데, 이를 역플라자 합의라 한다.[[9]](#footnote-9)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이때는 내릴 금리가 존재하질 않아서[[10]](#footnote-10)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게 되는데, 이를 아베노믹스라고 한다. 다만, 무제한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11]](#footnote-11) 시행하고도 물가상승률 2%를 아직도 달성하지 못했다.

1.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당시 서독), 일본을 의미함 [↑](#footnote-ref-1)
2. 기존 G5 + 캐나다, 이탈리아를 의미함. [↑](#footnote-ref-2)
3. 금리가 낮아 대출받기 쉬웠으며, 저물가로 인해 남는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함. [↑](#footnote-ref-3)
4. 이 사태 이후 월요일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여담으로, 코로나는 다우존스 지수를 40%p나 떨궜다고 함. [↑](#footnote-ref-4)
5. 2021년 현재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닛케이 지수가 한때 30467을 찍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치임을 알 수 있음. [↑](#footnote-ref-5)
6. 당시 LTV는 120%였는데, 10억 집을 12억 대출받아 샀는데 이자가 연 3000만에서 7200만원이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니 주택 매도자가 폭증했고,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업무 마비가 된다. [↑](#footnote-ref-6)
7. 일본 국내는 너무 얼어붙었기에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일본 보험사들은 국외에 투자를 해왔었다. [↑](#footnote-ref-7)
8. 엔화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때 엔화가치가 달러당 80엔대까지 올라갔다. [↑](#footnote-ref-8)
9. 이 이후 엔화가치가 달러당 100엔까지 올라갔다. 다만, 계속 엔고일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IMF라는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 [↑](#footnote-ref-9)
10. 일본은 2012년 당시 이미 금리가 0%였기에 내릴 금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2016년에 금리를 -0.1%로 내린 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으나, 이는 극약처방이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footnote-ref-10)
11. 마이너스 금리란, 돈을 빌리면 이자를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상환할 원금이 깎이고,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예금한 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 [↑](#footnote-ref-11)